

■ 연구원 소식

○ 한국고전문화학연구원에서 드리는 열네 번째 “영상택배” 안내



지난 주 보내드린 일본평론사 오이시 스스무 회장의 “인권변호사 후세 다쓰지와 조선”을 주제로 한 강연에 이어 이번 주에는 일본 추오대학의 이형랑 교수께서 진행한 “재일조선인과 아시아 공동체” 강연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연구원에서 준비한 영상택배가 물리적 거리두기를 뛰어넘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힘이 되길 바랍니다.

청년 노동자의 죽음 - 1987. 8. 22

남원에서 전주로 오는 17번 국도변인 남원시 사매면 관풍리 산 59-1번지에 가면 스물 한 살의 나이에 숨을 놓은 "영원한 청년"의 무덤이 있다. 그는 남원시 사매면에서 태어나 1982년 용북중학교를 졸업한 후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해 상급학교 진학 대신 광주에 있는 직업훈련원에 입소해 1년 동안 기술을 익혔다. 직업훈련원을 마친 후 거제도에 있는 대우조선에 입사해 조립부에 근무를 시작했다.

그가 일했던 대우조선은 당초 대한조선공사에서 1972년 거제도 옥포만에 공장부지를 조성하고 조선소를 건설하던 중 정부에서 공사포기를 선언하고 1976년, 대우김우중에게 금융지원과 함께 이를 인수케 함으로써 탄생하게 되었다. 198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생산 활동은 해를 거듭하면서 증가되는 물량에 따른 많은 노동자들을 필요로 했다. 1985년 초에는 약 3만 명에 이르는 노동자가 생계의 터전으로 삼는 거대한 작업장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그런데 85년 초에 새로 부임한 사장 윤영석은 경영 합리화라는 이름으로 먼저 1만 5천여 협력업체(하청업체) 노동자에 대한 인원 감축을 시행하는 한편 직영 노동자에 대해서도 인원감축을 목표로 한 전무후무한 탄압을 자행했다. 실 예로 해고 사유를 만들기 위하여 회사가 개인에게 지급한 안전화를 들고 나가는 것, 작업 중에 사용하던 석필, 토치바늘, 줄자, 토치 라이터, 매직, 기타 소모품을 작업복 주머니에 넣고 무의식적으로 퇴근하는 일, 심지어는 쓰던 면장갑을 뒷주머니에 넣고 퇴근하는 일 등을 적발, 사내 물품 절도란 이유로 서슴없이 해고하는 등의 강력한 징계조치를 강행했다.

6월 항쟁의 꼬리를 물고 한반도를 뒤덮은 노동자 대투쟁이 그해 여름 시작되었다. 경향각지에서 노동조합의 깃발이 그때처럼 힘차게 펄럭인 적은 아마 1946년 9월의 전평(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 총파업 이후 처음이었을 것이다. 1987년 7월 울산 현대엔진 노조결성으로 시작된 노동자 대투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1985년부터 임금이 하나도 오르지 않았고, 상시적인 해고의 공포에 질려 있던 대우조선 노동자들은 '가축'이 아닌 '가족'으로서의 권리를 외치게 된다. 대우조선에서도 8월 8일 노조결성을 요구하는 파업이 개시되었다. 8월 9일 노조가 결성되었으나 이틀 뒤인 11일 노조위원장이 회사에 회유를 당했다. 이에 노동자들은 다시 노조를 결성하고 14일부터 옥포, 장승포 등지에서 가두행진을 벌였다.

8월 20일, 노동자 5천 여명이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여섯 차례 협상이 진행되었지만 모두 결렬되고 사측은 무기한 직장폐쇄를 통보했다. 전국 각지에서 12개 중대 1천 5백명 병력의 전투경찰이 소집되어 거제도에 배치되었다. 8월 22일 1시 30분, 옥포관광호텔 앞에서 노동자와 전투경찰이 대치한 가운데 호텔에서 열린 마지막 협상은 현장수당 2만원과 가족 수당 1만원 신설이 조합의 요구였지만 회사 측은 매정하게 고개를 젓는 것으로 결렬되고 말았다.

이에 대우조선 노동자와 가족들은 당시 거제도 현지에 내려와 있던 김우중 회장을 직접 만나겠다고 물러간다. 노동자들이 호텔 진입을 시도하자 경찰은 평화 시위를 보장하겠다고 나섰고, 이 말을 믿은 노동자들이 오리걸음 행진을 시작했다. 불별더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던 그 날, 땀방울에 시커멓게 탄 얼굴의 노동자들이 머리에 손을 얹고 오직 "회장님을 만나기 위해" 머리에 손을 얹고 기어가는 모습은 슬프디 슬픈 역사의 현장이었다. 그러나 경찰들은 약속을 깨고 최루탄을 난사하며 진압을 시작한다. 아수라장이 잠잠해질 무렵 노동자 한명이 경찰이 쏜 직격 최루탄에 맞아 쓰러진 채 발견된다.

1987년 6월 9일 경찰이 쏜 직격 최루탄에 맞은 연세대 이한열 학생이 7월 5일 절명한 후 불과 한달 여만에 일어난 공권력에 의한 살인이었다. 이한열 열사는 한달여 간 사투를 벌이다 숨을 놓았는데 그는 오후 2시 40분에 최루탄에 맞고 그날 오후 3시 30분에 운명한 차이 뿐이었다.

그의 죽음 앞에서 노동자들은 격분했고 완강히 버티던 사측도 한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마침내 8월 27일 임금협상이 타결됐고, 28일 장례식이 결정됐다.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와 당시 인권변호사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 등이 장례준비위원회를 결성, 유족으로부터 장례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다.

8월 28일 오전 7시경, 2만 여 명이 모인 가운데 영결식이 진행되었고, 오후 3시에 노동자 1천 5백명이 버스 28대에 나눠 타고 영구차와 함께 광주 망월동 묘지로 향했다.

그러나 차량 행렬이 고성 삼거리에 도착했을 때 경찰은 영구차와 만장차만 통과시키고 15톤 덤프트럭으로 도로를 막은 뒤 시신을 탈취 남원군 사매면 관풍리에 그를 매장했다. 당초 8월 28일 오후 6시에 망월동에서 매장을 진행하면서 전국적으로 추모대회가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경찰은 대회를 원천봉쇄했고 8월 28일 하루동안 전국적으로 933명이 연행되고, 이상수·노무현·박용수를 비롯한 74명이 구속되었으며, 이소선 등 10여 명이 수배되었다.

2013년 개봉해 천만관객을 동원했던 영화 "변호인"의 마지막 장면은 실제 그의 장례식을 주도했던 변호사 노무현이 "장례식 방해" 혐의로 구속된 일을 모티브로 한 것이다. **33년 전 8월 22일, 청년 노동자 이석규가 하늘의 별이 되었다.**

■ 천년 암자에 오르다

<사불산 윤필암과 묘적암> 여덟 번째 이야기 “묘적암과 나옹화상”

유영봉(연구원 평의원 /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묘적암 | 울긋불긋한 단청 단장을 거부했기에 겸손하고도 소박한 암자 하나가 부드러운 햇살 아래에 온몸을 드러냈다.

세월이 흐르면 세상 풍광은 당연히 바뀐다. 물통을 지고 앞서가는 묘적암 주지스님의 지게는 나무가 아닌 알루미늄이다. 그리고 물동이아 아닌 생수통이다. 전설이 주는 관념 속의 풍광이라면, 마땅히 나무 지게에 옹기 물동이를 지고 가는 스님이라야 맞을 것이다. 그렇지만 오늘도 변함없이 물을 길어 나르는 스님의 묵묵한 뒷모습에서, 정답고 친근한 옛 모습이 저절로 그려진다.

스님의 뒤를 따라 한 구비를 돌자, 묘적암이 눈앞에 바짝 다가선다. 그러나 묘적암은 전혀 기대를 벗어난 모습이다. 곱게 단청을 올린 도도한 암자의 모습이 아니라 세월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시나브로 늙어 가는 속세의 기와집과 별반 다름이 없다. 암자를 향해 오르는 작은 계단 또한 고풍이 물씬하지만, 출입문도 웅색하고 예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그 옆의 낮은 해우소에서는 특유의 냄새가 풍겨난다. 암자라기보다는 조출한 개인 집으로 드는 느낌이다. 세상에 이런 암자를 또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묘적암은 646년(선덕여왕15)에 부설거사浮雪居士가 창건하였다고 전한다. 그러나 뭐니뭐니 해도 묘적암은 나옹화상의 출가지로 명성이 높다. 나옹화상의 출가에 대한 이야기는 앞서 설봉산의 영월암을 다루는 대목에서 자세히 설명한바 있다. 지금도 묘적암의 불단佛壇 오른쪽 작은 골방 안에는 지공을 위시해 나옹과 무학으로 요약되는 '삼대화상三大和尚'의 영정이 모셔져 있다.

묘적암에는 해우소 외에 부속건물이 하나도 없다. 법당은 본래'일'자로 된 기와집 형식으로, 일반 개인 집의 안방 자리에 부처님을 모셨다. 부엌에 해당하는 자리에는 공양간이 들어섰다. 스님의 처소만 서쪽으로 달아 내서 마침내 좌우가 'ㄱ'자 모양으로 바뀌었다.

묘적암의 내부 역시 검소하기 짝이 없다. 불단마저 벽장 안에 모셔진 느낌으로, 단집은커녕 장식도 전연 없다. 탕화 한 폭만이 마루한쪽에 걸렸다. 법당 안의 사방 벽 역시 아무런 치장 없이 그냥 평범한 벽지로 도배되었을 뿐이니, 포교보다는 수행 정진하는 토굴에 가까운 형상이다. 한없이 수수하고 편안한 시골집이라고 해도 믿을 만한 모습이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이곳을 찾은 촌로들의 왁자한 웃음소리와도 썩 잘 어울린다.

옛날 나옹화상은 이곳에 머무는 동안「토굴가土窟歌」를 지었다고 한다. 이로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묘적암은 토굴의 형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가 보다.

청산림靑山林 깊은 골에 일간토굴一間土窟 지어 놓고
송문松門을 반개半開하고 석경石徑에 배회徘徊하니
녹양춘삼월하綠楊春三月下에 춘풍이 건듯 불어
정전庭前에 백종화百種花는 처처에 피었는데
풍경風景도 좋거니와 물색物色이 더욱 좋다.
그 중에 무슨 일이 세상에 최귀最貴하고.

일편무위진묘향一片無爲眞妙香을 옥로중玉爐中에 꽃아 두고
 적적寂寂한 명창하明窓下에 묵묵히 홀로 앉아
 십 년十年을 기한 정코 일대사一大事를 궁구하니
 종전에 모르던 일 금일에야 알았구나.
 일단고명심지월一段孤明心地月은 만고에 밝았는데
 무명장야업파랑無明長夜業波浪에 길 못 찾아다녔도다.
 영축산제불회상靈鷲山諸佛會上처처에 모였거든
 소림굴조사가풍小林窟祖師家風어찌 멀리 찾을 소냐.
 청산은 묵묵하고 녹수는 잔잔한데
 청풍淸風이 슬슬瑟瑟하니 어떠한 소식인가.
 일리제평一理齊平 나툰중에 활계活計조차 구족具足하다.
 천봉만학千峯萬壑 푸른 송엽松葉 일발중一鉢中에 담아 두고
 백공천창百孔千瘡 깊은 누비 두 어깨에 걸었으니
 의식衣食에 무심無心커든 세욕世慾이 있을 소냐.
 욕정欲情이 담박淡泊하니 인아사상人我四相쓸데없고
 사상산四相山이 없는 곳에 법성산法性山이 높고 높아
 일물一物도 없는 중에 법계일상法界一相나투었다.
 교교皎皎한 야월夜月하에 원각산정圓覺山頂 선뜻 올라
 무공적無孔笛을 빗겨 불고 물현금沒絃琴을 높이 타니
 무위자성진실락無爲自性眞實樂이 이중에 갖춰더라.
 석호石虎는 무영無詠하고 송풍松風은 화답和答할 제
 무착령無着嶺 올라서서 불지촌佛地村을 굽어보니
 각수覺樹에 담화曇花는 난만개爛慢開더라.
 나무영산회상불보살南無靈山會上佛菩薩

묘적암은 그 주변도 여느 시골집과 거의 같은 모습이다. 이곳이 암자라고 여길 만한 표시나 흔적은 전연 없고, 풀들만 마음대로 자란다. 곳곳에서 민들레는 홀씨를 펼쳤고, 할미꽃은 때를 이뤄 하얀술을 날리는 중이다. 꽃송이를 달기 시작한 둥굴레도 암자를 향해 바짝 다가들었다. 비비추는 꽃대가 나오려면 아직 멀었다.

다음의 이야기로 미루어 보면, 암자와 암자 주변을 꾸미지 않는 전통 또한 나옹화상 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더불어 '대승大乘'의 경지가 무엇인지 보여 주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나옹스님이 암자를 비운 어느 날이다. 누군가가 찾아와 오래도록 기다리다가, 스님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마당의 수북한 풀을 모두 베어 버렸다. 나중에 외출에서 돌아온 스님은 이를 보고 크게 꾸짖었다.

“어찌 내 밧들을 다 쫓아 버렸느냐? 풀이 없으면 내 밧인 여치와 매미와 메뚜기도 이곳을 떠날 것 아니더냐?”

이곳저곳을 기웃거리자니, 공양간의 보살님이 공양부터 하시라고 부른다. 아랫마을에서 올라오셨다는 촌로들 틈에 끼어, 염치없이 비벼 먹는 한 그릇의 공양은 맛을 형언하기 어렵다. 이 또한 부처님의 가피加被가 아니던가? 멀리서 왔다면 반찬 그릇을 앞으로 밀어 주는 인정 또한 고맙기가 한량없다.



나옹화상 부도

묘적암을 나와서 다시 약수터 쪽으로 내려가 나옹화상의 부도를 찾는다. 약수터 바로 위에서 숲으로 난 오솔길로 접어들면 두 기의 부도가 나타난다. 그곳에서 10m 정도만 더 걸음을 내딛으면, 나옹화상의 부도가 따로 나온다.

부도 앞에 서자 두 손이 절로 모아진다. 스님의 자취 하나가 이렇게 깊은 산중에 남았다. 무심한 구름이 푸른 하늘에 떠가고 산새들만 우짖는다. 묘적암 뒤편에는 '말안장바위'가 있다. 산길로 20여 분 올라, 절경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절벽 아래다. 나옹스님이 앉아 참선을 하셨다는 이 바위는 일부러 조각한 말안장처럼 생겼다.

언젠가 아랫마을 사람들이 말안장바위에 앉아 참선 중인 선승을 보고 신선놀음이나 한다며 도끼와 괄이를 들고 와 바위의 앞머리를 깨뜨렸다고 한다. 그 뒤로 마을에 재앙이 연이따라 마을 사람들이 앞머리를 다시 붙여 놓았다고 하는데, 지금도 말안장바위 앞부분에는 다시 붙인 자국이 선명하다. 그리고 이 바위를 한 바퀴 돌아 나오면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덧붙여 전해 온다.

나는 깊은 감동을 또다시 가슴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꽤 많은시간이 흘렀는데도, 묘한 흥분이 영 가시질 않는다. 절마다, 암자마다 드리워졌을 꽃등이 못내 그리웠다. 내일이 부처님 오신 날이니, 집에서 가까운 절이라도 찾아가 그 행렬에 가담해야만 마음이 편해질까 싶었다. 결국 나는 다시 집을 나섰고, 후면경에 매달린 연꽃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다음 주는 <금오산 약사암> 첫 번째 이야기 "대인의 기상을 지닌 금오산"으로 여러분 곁을 찾아오겠습니다.